

김경진 교수의 섬기는 자 예수 이야기, 누가복음 이해하기

## 2. 공관복음의 다양성

※ 오늘의 포인트

- ① 복음서는 한 권이 아니라 4권입니다.
- ② 복음서는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③ 복음서의 다양성은

### 1. 복음서는 1권이 아니라 4권입니다.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니라 4권이라는 것은 복음서가 통일성만이 아니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4 권의 복음서가 같은 사건과 교훈을 다룸에 있어서 많은 경우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복음서 사이의 차이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에서는 복음서를 대함에 있어서 통일성 중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하여 4권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고, 따라서 4 권이 합쳐서 종합적으로 1권이 된다고 이해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4 권의 복음서는  $1/4$  이 될 것이고,  $1/4 \times 4 = 1$  이란 등식이 성립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  $1/4$ 이라면, 결국 마가복음은 불완전한 책이 되고 맙니다. 복음서는 결코 불완전한 책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완전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책이 왜 같은 내용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저자들의 해석, 즉 신학을 함께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 복음서는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史實)에 대한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우리는 3 가지 본문의 예를 들어 이 점을 좀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 2.1. 주님의 세례 사건

### 2.1.1. 마가복음(마태복음)

먼저 마가복음 1장 9-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의 수세 장면에 대하여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기에다 주님과 세례 요한 사이의 대화를 추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 3:14-15)

### 2.1.2. 누가복음

그런데 누가복음의 경우는 앞의 복음서들과 매우 다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눅 3:21-22)

간단히 말해서,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는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분봉 왕 헤롯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을까요?

동일한 사건이지만, 공관복음 저자들은 똑같이 기록하지 않고,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생략함으로써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어느 복음서가 맞고 어느 복음서가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말씀으로 오류나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복음서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해석할 수 없다면, 복음서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할

수 없도록 성경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능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2.2. 부자 청년 이야기

이러한 차이점이 우연한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두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 청년(관리) 이야기입니다.

### 2.2.1. 마가복음(마태복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라” (막 10:22-23 / 마 19:22-23)

어떤 부자 청년(누가복음에는 관리)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묻자, 주님은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킬 만큼 열심인 것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분부였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포기할 수 없기에 매우 슬퍼하여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현장을 떠나간 까닭에 주님은 재물에 관한 교훈을 주위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 2.2.2. 누가복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눅 18:23-24)

위에서 보듯이, 부자 청년은 누가복음에서 현장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장에 남아 있는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며 재물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대할 때 어떤 분들은 역사적 사실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실은 부자 청년이 떠나든지 남든지 간에 분명 하나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기록될 수 있는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다양성(diversity)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복음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전혀 없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결국 그 사건을 성경 저자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서 사이에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면, 놀라거나 두

려워할 것 이 아니라, 과연 성경저자가 다르게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과 같은 성경 강좌를 통하여 복음서 해석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주석이나 성경사전과 같은 전문적인 서적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 기사에 나타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차후 강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2.3. 제자 파송 사건

마지막으로 복음서 사이의 차이점에 관한 대표적 사례 하나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 파송 사건입니다.

#### 2.3.1. 마가복음(누가복음)

먼저 마가복음 6장 7-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막 6:7, 12-13)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날날이 고하니.” (막 6:30)

이 구절에서 보듯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지창지역기간 동안 주님의 권능을 수여받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돌아와 사역 보고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도 마가복음과 유사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눅 9:1-6, 10).

#### 2.3.2. 마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마가, 누가복음과는 매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 10:1, 5-6)

열핏 보면, 마태복음도 마가, 누가복음과 똑같이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오히려 주님의 전도 파송 설교 자체는 마가, 누가복음이 네 절에 불과한 것에 비해 거의 10배나 더 많고 깁니다(서른일곱 절).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태복음이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것은 10배나

더 긴 파송설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파송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파송설교를 마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 11:1)

마태복음에서, 10배나 더 긴 설교 후에 떠나간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파송되어 나가지 않은 까닭에, 마가, 누가복음에서처럼 전도 사역 보고도 당연히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록인 것입니다.

### 3. 나가는 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러한 복음서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코 어느 복음서가 맞고 어느 복음서가 틀리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는 누가 마가, 마태와 다르게 기록하였는데, 제자 파송 사건에서는 마태가 마가, 누가와 다르게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차이점을 복음서의 진위(眞僞, true or false) 문제로 간주한다면, 결국 복음서는 온갖 오류로 점철된 인간의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복음서를 포함하여 성경은 이처럼 많은 오류를 담고 있는 인간의 책인 까닭에 <예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사이의 이러한 차이점은 인간 저작자들의 실수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경저자에게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자유 및 권한을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 사이의 이러한 차이점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저자에게 같은 사건과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교훈을 보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서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 통일성만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인 다양성을 아울러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앞으로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저는 누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이러한 다양성에 착안하여 강의를 풀어가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적용점

① 복음서는 역사적 기록과 함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풍요롭게 합니다. 이러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할 것입

니다.

② 복음서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신학을 배격해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오류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영원한 해답입니다.

